

전북수산물식품, 홍콩을 사로잡다

바이오 진흥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HKTDC Food Expo 2025 전북홍보관 성황리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난14일부터 18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HKCEC)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식품 전문 전시회 HKTDC Food Expo 2025에 참가해 전북홍보관을 운영하고, 총 80만 불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25개국 1,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만여 명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했다. 진흥원과 해양센터는 홍콩 및 중화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이번 전시회를 적극 활용했다.

박람회에 앞서 진흥원은 홍콩을 비롯한 중국 시장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분석하고,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수출 요건과 전략을 안내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특히, 현장에서는 청정 원료 기반 기



능성 식품과 전통성을 살린 간편식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즉석조리 제품, 수산가공식품 등은 '간편 조리', '프리미엄 건강', '현지 식문화와의 유사성' 측면에서 현지 HMR(가정간편식) 수요와 맞아떨어져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참가 기업들은 전통 수산장류 외에

도 녹차 발효 젓갈 수산 육수 기반 간편식 등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와 활발히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가 초청한 홍콩·광저우 바이어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는 저염·소용량 패키지 개발, 현지화 전략, 프리미엄 기능성 식품 차별화 방안 등이 논의됐

고, 현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테스트 입점 협의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팜조이는 홍콩 유통사 '한인홍', '신세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참가를 통해 전북 식품기업들이 프리미엄 간편식과 건강식품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중화권 전략시장에 특화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흥원 해양센터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현지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실적을 바탕으로 바이어 초청,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지금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신청… 내달 15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선정을 위해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일자리 감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작년 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조건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특히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격요건은 △국세·지방세 미납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산재 명단공개, △부당해고 확정,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처벌·과태료, △취업규칙 미신고 △채용절차법 처벌·과태료, △신용등급(BB-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제의 업종이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누리집(<http://kansakova.or.kr>)에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선정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3년간(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주어진다.

/오상근기자

전북농협, 2025년 을지연습 실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전시전환절차 등 위기관리 능력 배양

전북농협은 지난 18일 오전 9시 전시상황조치훈련을 시작으로 2025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전북농협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비상사태 시에도 전북농협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시 전환절

차, 위기 상황을 가정한 사건메세지 훈련, 소방훈련, 전시 식량 체합을 실시할 예정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목표로 연습에 임한다.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첨단 과학기술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 시 전시전환절차 등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전시 과제토의와 실제훈련을 통해 국가경제의 핵심인 농업·금융분야의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 민·관·군 4,000여 기관 58만여명이 참가하는 정부차원의 종합적 비상대비 훈련이다. /오상근 기자



부안농협·농협생명 전북총국, 쌀의 날 맞아 독거노인·취약계층에 쌀 나눔

부안농협과 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18일 쌀의 날을 맞아 부안군청에서 쌀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철 부안농협 조합장과 지광수 농협생명 전북총국장,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조상완 지부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소외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기부된 쌀 총 600포대는(2천만 원 상당)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광수 전북총국장은 “농협은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쌀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농협생명은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커리어 부트 2025 JB 청년캠프’ 성료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도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위해 열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도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지난 13~14일 양일간 전북은행 본점에서 커리어 부트 2025 JB 청년캠프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실제 취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퍼스널 스타일링, 면접 이미지메이킹, 자기소개서 및 면접 답변 작성법, 실전 모의 면접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컬러 브랜딩 개인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사정 활동 등을 통해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이미지를 완성하는 시간과 전북은행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직장 생활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청년은 “박연했던 취업 준비가 이번 캠프를 통해 구체화 된 것 같아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전북은행 선배와의 만남에서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청년캠프는 취업을 앞둔 지역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과 장학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JB어린이 스포츠 클럽, JB인문학 강좌, JB Dream up 진로코칭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며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